

端緒分析을 통한 패션트렌드 연구 II

李 英 宰

漢陽大學校 디자인大學 助教授

Research of Fashion Trend through Analysis on Cue II

Lee, Young-Jae

Assistant Prof.,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 trends through analysis on cu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distinctly and systematically. It is carried out by both qualitative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four important street fashions of neo-mods/jazz, neo-hippie/grunge, sportive-casual and technos/cyber-punk are grouped.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statistical data are sampled from Collection II of the 1990s S/S. It takes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and etc. by using the comprehensive tools for statistical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S fashion.

According to the cues,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ashion in the 1990s. In 'Neo-Mos/Jazz' style shows highly androgynous look, deep and strong tone, green/blue colors, natural fabric, stripe pattern, long hair style, and hided make-up. 'Neo-hippie/gnenge' style shows highly folklore look, vivid tone purple colors, seethrough/knit fabric, natural /traditional pattern, decorative hair special make-up. 'Sportive casuals' style shows highly sportive look, greish tone, white/grey colours, natural fabric, solid patten, bobbed hair, and natural make-up. 'Techno/cyber punk style shows highly comocorps look, pale tone black colors avangard fabric, solid patten, punk/dyed hair special make-up.

Key words: cue analysis(단서 분석), qualitative analysis(정성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정량적 분석), fashion trend(패션 트렌드)

I. 서론

1. 연구목적

본 논문은 단서분석을 통한 패션 트렌드 연구¹⁾에 계속된 것으로 전편에서는 1990년대 A/W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단서분석을 하였고, 본 연구인 II에서는 1990년대 S/S 프레타포르테 컬렉션²⁾에 나타난 패션 단서 분석을 하였다. 단서(cue)란 인상 형성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특히, 의복을 포함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 패션이 사회생활에서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있다.

현대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은 사회·정치적 주도 세력에 반발하는 소외된 집단-소수 민족주의 집단, 하위문화 집단, 환경 운동가, 여권 운동가, 동성연애자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권위에 대한 거부, 비판적인 태도, 허무주의, 다원주의, 대중 매체 중심의 팝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³⁾ 그러므로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패션의 다양성은 일괄적인 분석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문화 속의 패션도 이지 캐주얼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믹스 앤 매치로 다양한 코디를 착용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패션상품 기획 시 타킷의 정확한 needs를 파악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패션 착용자의 룩, 의복의 색채, 소재의 종류, 직물 문양, 헤어스타일 유형, 메이크업 유형을 1990년대 프레타 포르테 콜렉션 사진 자료의 단서 분석을 통한 패션 트렌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된 패션 트렌드 분석⁴⁾과는 달리 내용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정성적인 연구와 병행⁵⁾하여 실증적으로 수량화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즉, 단서분석이 의상사회심리학의 인상 형성뿐만 아니라 패션 트렌드 파악에 있어서도 유용한 연구 방법임을 입증하여 실용적인 이론임을 밝히 고자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서론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전편에서는 1990년대 A/W 프레타포르테 콜렉션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인 II에서는 1990년대 S/S 프레타포르테 콜렉션이 연구 조사 대상이다. 이와 같이 계절을 구분하여 연구 분석한 것은 분석 내용 중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재와 컬러 때문이다. 전편 연구와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일본 GAP PRESS에서 발간하고 있는 'Collections II'에서 사진 자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선정 방법은 전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쪽수를 잡지 한 권당 필요한 사진 숫자인 60으로 나누어 5~6쪽마다 추출하였다. 이때, 본 연구자와 4인의 의류관련학과 교수가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1990~1999년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하여 10권의 콜렉션지에서 각 권당 60매를 선정하여 모두 600매의 전체 복식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컬러 사진을 추출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1990년대 유행 패션 단서의 요목은 룩, 색상, 색채의

톤, 시각적으로 분류한 소재, 직물 문양, 헤어스타일 유형, 메이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단서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 분류시 본 연구자와 4인의 대학 의류학과 강사 및 교수의 검토를 거쳤으며 3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전편의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유행 패션을 그루핑하였다. 1990년대 유행패션별 패션단서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age)의 수량적 고찰을 하였고 유행 패션별 패션 단서들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카이검증(χ^2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1990년대 S/S 유행 패션의 추이

시기별 S/S 유행 패션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1990년대부터 1993년까지를 살펴보면,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과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각각 37.9%와 3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중반기에 이어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도 역시 중반기에 이어 스포티브 캐주얼이 33.9%로 높게 나타나 중기와 후기의 유행 경향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연도별 시기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초반기인 1990~1993년까지는 4권의 Collection II를 사용하여 각 권의 60매씩 240매가 되었고, 1994~1996년과 1997~1999년은 각 권 3권의 Collection II를 사용하여 각 권 180매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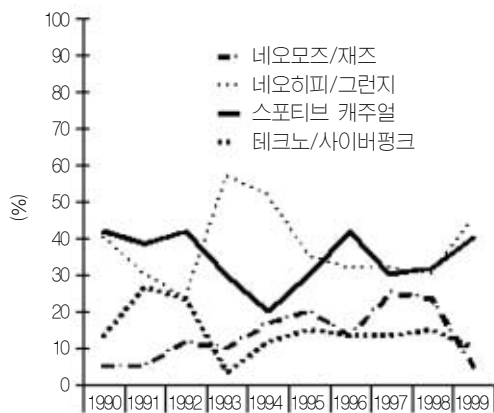
<표 2>는 1990년대 S/S 패션의 유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기에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중반기

<표 1> 시기별 S/S 유행 패션의 변화

단위: 빈도 (%)

연 대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총 계
1990~1993	19(7.9)	90(37.5)	91(37.9)	40(16.7)	240(40.0)
1994~1996	30(16.7)	71(39.4)	55(30.6)	24(13.3)	180(30.0)
1997~1999	32(17.8)	64(35.6)	61(33.9)	23(12.8)	180(30.3)
계	81(3.5)	225(37.5)	206(34.5)	87(14.5)	600(100.0)

<표 2> 1990년대 S/S 패션의 유행



에는 네오히피/그런지가 가장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은 중반기에 감소하였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높게 나타났다. 그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0년대 가장 유행하였던 스타일은 네오히피/그런지와 스포티브 캐주얼로 후반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행이 지속되어 21C에 들어서도 가장 주목받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1990년대 S/S 유행 패션별 패션 단서 분석

1) 룩

1990년대 S/S 유행 패션별 룩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817.70$). 그러나, 관찰빈도가 50이하가 전체의 20%를 넘어 카이검증값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다. 룩의 유목을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여 9가지 요목

으로 재 수정한 후 분석하였다.

각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는 앤드로지너스룩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남성복 또는 중성의 요소를 많이 함축하고 있다는 결과로 스타일의 특징을 분석해본 결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정돈된 듯한 단순함과 베이직한 형태로 좁은 어깨의 재킷과 슬림한 팬츠의 날씬한 몸매를 나타내는 실루엣과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의 멋을 낸 엘레강트 탠디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에서는 포클로어룩이 84.9%, 에스닉룩이 83.8%, 로맨틱룩이 81.0%, 푸어룩이 73.4%로 다른 스타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룩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실생활에서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되어지는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스포티브 룩이 93.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색시룩이 4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계절적 영향으로 사료된다. 노출이나 속옷의 가시화, 속옷의 걸옷화가 많아 색시룩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에서는 우주복룩이 85.7%로 가장 높고, 펑크룩이 55.9%를 나타내고 있다.

룩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색시룩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에서 26.4%,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에서 26.1%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푸어룩으로 15.7%를 나타내고 있으며, 로맨틱과 포클로어룩에서도 네오히피/그런지가 각각 73.4%, 28.0%, 26.2%로 높게 나타났다.

스포티브룩은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28.0%로 가장 높았으며, 앤드로지너스룩에서는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75.3%로 가장 높았다. 우주복룩과 펑크룩에서는

<표 3> S/S 유행 패션별 룩의 차이

단위: 빈도 (%)

룩\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섹시 룩	8(7.3) <99>	25(22.7) <11.1>	54(49.1) <26.1>	23(20.9) <26.4>	110(100.0) <133>
푸어 룩	1(1.1) <12>	69(73.4) <30.7>	24(25.5) <11.6>	0(0) <00>	94(100.0) <15.7>
로맨틱 룩	4(5.2) <49>	63(81.0) <28.0>	11(14.1) <5.3>	0(0) <00>	78(100.0) <13.0>
스포티브 룩	1(1.6) <12>	1(1.6) <0.4>	58(93.5) <28.0>	2(3.2) <2.3>	62(100.0) <10.3>
앤드로지너스 룩	61(68.5) <75.3>	1(1.1) <0.4>	26(29.2) <12.6>	1(1.1) <1.1>	89(100.0) <14.8>
우주복 룩	0(0) <00>	1(2.0) <0.4>	6(12.2) <2.9>	42(85.7) <48.3>	49(100.0) <8.2>
핑크 룩	3(8.8) <3.7>	6(17.7) <2.8>	6(17.7) <2.8>	19(55.9) <21.8>	34(100.0) <5.7>
포클로어 룩	2(2.8) <2.5>	59(84.3) <26.2>	9(12.8) <4.6>	0(0) <00>	70(100.0) <11.9>
계	80(13.7) <100.0>	225(37.5) <100.0>	194(33.1) <100.0>	87(14.5) <100.0>	586(100.0) <100.0>

$$\chi^2 = 817.70^{**}$$

**P<.001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이 각각 48.3%, 21.8%로 높게 보여지고 있다.

2) 색채

1990년대 S/S 유행 패션별 색상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chi^2 = 17.31$) 색의 톤도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8.28$).

각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는 black이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red/orange가 15.0%이다. 톤에서는 어두운/짙은이 26.1%로 가장 많고, 회/칙칙한이 19.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네오히피/그린지에서는 red/orange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purple이 41.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색의 톤에서는 연한이 50.0%, 회/칙칙한

이 40.3%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연한과 회/칙칙한에 대해서 red/orange와 purple이 높게 나타나, 명도, 채도가 높은 색상이 네오히피/그린지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스포티브 캐주얼에 있어서 white/grey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green/blue가 38.5%의 순서로 나타났다. 톤을 살펴보면, 순(純)이 35.6%, 밝은이 34.5%, 회/칙칙한이 33.8%의 순서로 나타나 색상과 톤의 요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white/grey가 20.3%, black이 19.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유행 패션에 비해 무채색 계열이 높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톤에서는 순(純)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밝은이 17.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색상별로 살펴보면, red/orange가 네오히피/그린지에서 33.7%로 가장 높으며, green/blue는 스포티브/캐

주얼에서 19.8%로 가장 높고, purple은 네오히피/그런지에서 11.7%로 높게 나타났다. white/grey와 black은 테크노/사이버핑크에서 각각 32.9%와 26.8%로 가장 높았다.

연한 톤에서는 네오히피/그런지가 26.7%로 제일 높

고, 밝은 톤과 회/칙칙한 톤, 어두운/질은에서는 네오모즈/재즈가 각각 17.3%, 18.5%, 14.8%로 가장 높다. 순 톤은 테크노/사이버 핑크가 57.5%로 가장 높게 보여진다.

<표 4> S/S 유행 패션별 색상의 차이

단위: 빈도 (%)

색상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핑크	계
red/orange		22(15.0)	66(44.9)	42(28.6)	17(11.6)	147(100.0)
		<27.8>	<33.7>	<22.5>	<20.7>	<27.0>
green/blue		12(12.5)	35(36.5)	37(38.5)	12(12.5)	96(100.0)
		<15.2>	<17.9>	<19.8>	<14.6>	<17.6>
purple		7(12.7)	23(41.8)	21(38.2)	4(7.3)	55(100.0)
		<8.9>	<11.7>	<11.2>	<4.9>	<10.1>
white/grey		19(14.3)	34(25.6)	53(39.8)	27(20.3)	133(100.0)
		<24.1>	<17.3>	<28.3>	<32.9>	<24.4>
black		19(16.8)	38(33.6)	34(30.1)	22(19.5)	113(100.0)
		<24.1>	<19.4>	<18.2>	<26.8>	<20.8>
계		79(14.5)	196(36.0)	187(34.4)	82(15.1)	544(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17.31^*$$

*P<.05

<표 5> S/S 유행 패션별 색의 톤의 차이

단위: 빈도 (%)

색의 톤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핑크	계
연한		9(7.6)	59(50.0)	38(32.2)	12(10.2)	118(100.0)
		<11.1>	<26.7>	<18.7>	<13.8>	<19.9>
밝은		14(16.1)	28(32.2)	30(34.5)	15(17.2)	87(100.0)
		<17.3>	<12.7>	<14.8>	<17.2>	<14.7>
회/칙칙한		15(19.5)	31(40.3)	26(33.8)	5(6.5)	77(100.0)
		<18.5>	<14.0>	<12.8>	<5.7>	<13.0>
어두운/질은		12(26.1)	14(30.4)	15(32.6)	5(10.9)	46(100.0)
		<14.8>	<6.3>	<7.4>	<5.7>	<7.8>
순		31(11.7)	89(33.7)	94(35.6)	50(18.9)	264(100.0)
		<38.8>	<40.3>	<46.3>	<57.5>	<44.6>
계		81(13.7)	221(37.3)	203(34.3)	87(14.7)	592(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28.28^{**}$$

**P<.01

3) 소재

소재는 사진자료의 분석이라는 연구 제한점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분류하였다. 1990년대 S/S 유행 패션별 소재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36.28$)

네오모즈/재즈에서는 모직물이 포함된 천연직물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견직물과 합성섬유의 광택성 소재가 14.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 남성성이나 중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남성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직물, 면직물, 마직물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오히피/그린지에서는 비치는/니트 소재가 50.9%, 천연직물이 33.8%의 순서로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린지에서는 얇고 드레이프성이 높은 소재와 니트나 그물처럼 엮어서 해체의 빈곤·황폐를 표현한 직물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얇은 소재 역시 속옷의 가시화를 가져오기에 해체의 내적 의미 중 타자성의 부각에 해당되어 네오히피/그린지 스타일의 특징에 더욱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비치는/니트 소재가 41.6%, 천연직물이 36.9%로 나타났다. 활동성이 용이하고 착용감이 편안한 비치는/니트 소재가 높게 사용된 것은 여름철의 노출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천연직

물은 땀의 흡수성이 뛰어나고 세탁이 용이하므로 S/S 소재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피혁, 비닐, 메탈릭 소재가 포함된 전위성 소재가 62.5%로 높게 나타나, 다른 스타일과는 차별화되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즉, 사이버적 요소의 특성을 광택 있는 메탈릭 직조, 실버 코팅 직물, 패딩된 합성직물, 투명한 비닐, 플라스틱,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신소재 등 하드하고 매끄러운 표면의 직물 등의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

천연직물에서는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택성 소재는 전위적인 광택성 금속 소재의 사용이 빈번한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위성 소재에서도 플라스틱, 신소재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치는/니트 소재에서는 네오히피/그린지 스타일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직물 문양

1990년대 S/S 유행 패션별 직물 문양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63.48$) 직물 문양의 요목은 무문, 기하학문양, 추상문양, 자연/전통문양으로 나누었으며, 자연/전통문양에는 식물

<표 6> S/S 유행 패션별 소재의 차이

단위: 빈도 (%)

소재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천연직물		49(24.7) <60.5>	67(33.8) <29.8>	73(36.9) <35.3>	9(4.5) <10.3>	198(100.0) <33.0>
광택성 소재		22(14.4) <27.2>	66(43.1) <29.3>	50(32.7) <24.2>	15(9.8) <17.2>	153(100.0) <25.5>
전위성 소재		6(6.8) <7.4>	10(11.4) <4.4>	17(19.3) <8.2>	55(62.5) <63.2>	88(100.0) <14.7>
비치는/니트 소재		4(2.5) <4.9>	82(50.9) <36.4>	67(41.6) <32.4>	8(5.0) <9.2>	161(100.0) <26.8>
계		81(13.5) <100.0>	225(37.5) <100.0>	207(34.5) <100.0>	87(14.5) <100.0>	599(100.0) <100.0>

$\chi^2 = 236.28^{***}$

***P<.001

문양, 동물문양, 자연현상, 지문, 전통문양을 포함시켰다.

각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는 기하학 문양이 19.7%로 가장 높아 점, 스트라이프, 체크, 다각형 등 앞서 소재의 모직물을 포함한 천연직물이 많았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모직물의 직조 과정에서 생기는 체크 무늬를 포함한 기하학 문양들이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네오히피/그런지는 자연/전통문양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연적 성향의 문양과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양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무문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하학문양이 36.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테크노/사이버펑크는 무문이 18.6%, 기하학 문양이 1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물문양별로 살펴보면, 무문은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59.8%를 나타내 가장 높았고, 기하학문양은 네오모즈/재즈가 35.8%로 제일 높게 보여졌다. 자연/전통문양과 추상문양에서는 네오히피/그런지가 각각 31.2%, 14.9%로 높게 나타났다.

5) 헤어스타일 유형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헤어스타일 유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9.38$) 헤어스타일 유형이 디자이너별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요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혼합형은 일부는 묶고 일부는 풀어 내린 머리 또는 땃은 머리 등을 포함하였다.

각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에서는 핑크/염색머리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발머리가 17.5%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머리장식이 46.3%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핑크/염색 머리가 45.1%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에서 과장된 머리 연출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짧은 커트 머리가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단발머리가 40.0%, 모자가 38.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스포티브 캐주얼의 헤어스타일 유형은 활동하기 간편한 짧은 커트 머리, 단발머리, 모자가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핑크/염색머리가 23.5%, 단발머리가 20.0%, 짧은 커트 머리가 16.3%의 순서로 나타났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소재와 마찬가지로 머리유형이 스타일의 특성을 부각시켜주는 중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다.

헤어스타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긴 머리는 스포티브

<표 7> S/S 유행 패션별 직물 문양의 차이

단위: 빈도 (%)

문양\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무문	33(12.5) <40.7>	76(28.8) <34.4>	106(40.2) <53.8>	49(18.6) <59.8>	264(100.0) <45.4>
기하학문양	29(19.7) <35.8>	43(29.3) <19.5>	54(36.7) <27.4>	21(14.3) <25.6>	147(100.0) <24.5>
자연/전통문양	19(9.8) <23.5>	69(67.6) <31.2>	20(19.6) <10.2>	3(2.9) <3.6>	102(100.0) <17.6>
추상문양	9(13.4) <11.1>	33(49.3) <14.9>	17(25.4) <8.6>	9(13.4) <11.0>	68(100.0) <11.7>
계	81(13.9) <100.0>	221(38.0) <100.0>	197(33.9) <100.0>	82(14.1) <100.0>	581(100.0) <100.0>

$$\chi^2 = 63.48^{***}$$

***P<.001

<표 8> S/S 유행 패션별 헤어스타일 유형의 차이

단위: 빈도 (%)

머리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펄크	계
긴 머리		14(136) <173>	37(359) <165>	39(379) <189>	13(126) <149>	103(1000) <172>
단발머리		7(175) <86>	9(225) <40>	16(400) <78>	8(200) <92>	40(1000) <68>
짧은 컷머리		13(141) <160>	24 <10.7>	40(435) <194>	15(163) <172>	92(1000) <154>
펑크/염색머리		16(198) <198>	23(45.1) <103>	9(17.6) <44>	12(23.5) <138>	51(1000) <85>
모 자		16(10.7) <198>	27(33.3) <12.1>	31(38.3) <15.0>	7(8.6) <80>	81(1000) <135>
머리 장식		8(9.8) <99>	38(46.3) <16.9>	25(30.5) <12.1>	11(13.4) <126>	82(1000) <13.7>
혼합형		16(10.7) <198>	66(44.3) <29.5>	46(30.9) <22.3>	21(14.1) <24.1>	149(1000) <24.9>
계		81(135) <1000>	224(37.5) <1000>	206(34.4) <1000>	87(14.5) <1000>	598(1000) <1000>

$$\chi^2 = 29.38^*$$

*P<.05

캐주얼에서 18.9%로 가장 높고, 단발머리는 9.2%를 나타낸 테크노/사이버펄크 스타일에서 높았다. 짧은 컷 머리에서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19.4%로 높게 나타났으며, 펑크/염색머리와 모자는 네오모즈/재즈에서 각각 19.8%로 가장 높았다. 머리 장식과 혼합형은 네오히피/그런지에서 16.9%와 29.5%로 높게 나타났다.

6) 메이크업 유형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메이크업 유형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0.49$). 메이크업 유형의 요목 중 얼굴을 감추는 메이크업은 선글라스나 모자의 일부가 얼굴을 가리는 경우와 직물이나 소재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각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는 짙은 메이크업이 19.4%, 특수메이크업이 14.4%로 높게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특수메이크업이 43.3%로 가

장 높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41.0%로 보여지고 있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36.5%,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35.0%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는데,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에서 선글라스를 포함하였기에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테크노/사이버펄크에서는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27.5%, 짙은 메이크업이 18.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의복 소재로 얼굴 전체를 감싼 경우나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린 경우도 종종 보여진다.

메이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분 색조메이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메이크업이 네오히피/그런지에서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짙은 메이크업은 네오모즈/재즈가 37.0%로 제일 높았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서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5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은 테크노/사이버펄크가 12.6%로 가장 높게 보여졌다.

〈표 9〉 S/S 유행 패션별 메이크업 유형의 차이

단위: 빈도 (%)

메이크업 \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특수 메이크업	13(14.4) <16.0>	39(43.3) <17.3>	27(30.0) <13.0>	11(12.2) <12.6>	90(100.0) <15.0>
질은 메이크업	30(19.4) <37.0>	46(29.7) <20.4>	51(32.9) <24.6>	28(18.1) <32.2>	155(100.0) <25.8>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34(10.8) <42.0>	129(41.0) <57.3>	115(36.5) <55.5>	37(11.8) <42.5>	315(100.0) <52.5>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	4(10.0) <4.9>	11(27.5) <4.9>	14(35.0) <6.8>	11(27.5) <12.6>	40(100.0) <6.7>
계	81(13.5) <100.0>	225(37.5) <100.0>	207(34.5) <100.0>	87(14.5) <100.0>	600(100.0) <100.0>

$$\chi^2 = 20.49^*$$

**P<.05

IV. 결론

현대 사회의 패션은 복잡하고 다양화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유행패션을 그루핑하고 패션단서로 트렌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10년간의 패션 경향을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패션트렌드 분석 시 사용되어 왔던 정성적 연구와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한 통계적 기법의 사용한 정량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인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패션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유행 패션을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각 스타일의 유행 경향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1990년대 가장 유행하였던 스타일은 네오히피/그런지로 중반기에 강세를 보이다가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선호도가 지속되리라고 보여진다.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재활용 패션과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의 선호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유행한 것은 스포티브 캐주얼로 초반기에 높게 나타나 감소와 증가

를 반복하였으나 후반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행이 지속되어 21C에 들어서도 주목받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이 생활속에서 계속 확대되어 연령, 성, 직업, T.P.O에 구애받지 않는 현대 패션의 가장 보편적인 일상 의류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량적 연구결과 1990년대 유행 패션별 패션 단서 각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 록은 '앤드로지너스룩'이, 색상은 black이, 색상은 어두운/질은이 소재는 천연직물이, 직물문양에서는 기하학 문양이, 헤어스타일 유형에서는 펑크/염색머리가, 메이크업 유형에서는 질은 메이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은 포플로어룩이 연한 red/orange가 비치는/니트 소재와 자연/전통문양이, 머리장식, 특수 메이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스포티브룩이 순(純)톤의 white/grey가 비치는/니트 소재와 무문이 짧은 컷머리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에서는 우주복룩이 순(純)톤의 white/grey가 전위성 소재와 무문이 펑크/염색머리와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1990년대 패션 경향을 패션 단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이로써, 시대의 조류에 민감하고 변화무쌍한 패션 트렌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니드에 부합하기 위한 디자인 창출에 유용한 자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이영재, 단서분석을 통한 패션트렌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권, 3호, 2000, pp. 79-90
- 2) Junko Ouchi, Collections, Gap Japan Co.,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Ltd
- 3) Marcia A. Morgado, Coming To Terms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Concepts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Apparel Schola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1), 1996, pp. 44-53.
- 4) 삼성패션연구소, Samsung Fashion Trend, 1998 Autumn/Winter, '90년대 패션의 흐름', 1998, p. 21.
- 5) 삼성패션연구소, Samsung Fashion Trend, For Women Spring Summer, 'Trend와 Counter Trend의 공존', 1999.
- 6) 김혜경,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Historic Clothing and Textil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한국의류학회지 Vol. 22, No. 7 1998, pp. 952-962.